

하루를 시작하며



고춘욱 시인

디지털 강사와 서포터즈를 고용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국민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작됐다.

디지털배움터 사전등록을 마친 어떤 분은 "이번 디지털 교육에서 어떤 과정을 원하시나요?"라는 서포터즈의 질문에 "음, 저는 웬만한 OA는 할 줄 아니까 엑셀을 심도있게 배우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작년 같으면 "나는 디지털에 대해서는 1도 몰라,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줘주세요 선생님" 하셨을 법한 노년의 목소리다. 지난

우리들의 제주디지털배움터를 위해

학습의 성과가 뿌리를 내리는 모양새로 보인다. 디지털배움터를 찾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실무과정'을, 보고업무나 강의를 주로 하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를, 중년층 이후의 분들은 'SNS를 통한 소통 방법' 등을 원한다. 직업별로 보면 농산물 직거래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유통망을 통한 생산물 홍보 판매와 소싱 플랫폼 운영 방법'을, 민박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블로그마케팅' 등을 선호한다. 또 기관이나 기업, 단체에서 직원들을 위한 '신규 오피스프로그램과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그리고 학교에서는 '코딩, 로봇 등'과 같은 교육을 원한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2021년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

판 뉴딜사업을 수행하게 된 제주도와 Ktcs의 제주디지털배움터 센터장 김남영은 현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디지털강사와 서포터즈 선발을 위한 첫 대면부터 "제 포부는 할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게 일상이나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며 일을 시작했다.

또한 주니어, 시니어, 특정 과정 등 계층별 전담팀을 구성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따로 꾸려 교육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강사의 연령대까지 조정하며 교육생들의 세대별 격차를 고려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의지를 표명했다.

가뜩이나 위축된 국면에서도 도민들의 최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은 처음 계획보다 두 배 더 많은 디지털배움터 39개소를 지정 등록하고도 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정도다.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려는 제주디지털배움터 역시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우리는 미래가 현재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상상하는 세계가 진짜 현실로 나타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증강현실을 맞았다. 따라서 뇌 언어와 컴퓨터 언어로 소통하는 증강인간 시대도 열렸다. 언론은 DNA가 플래시메모리에 비해 집적도는 1000배 높고 에너지 소모는 1억 배 낮으며, 보관은 수백만 년까지 가능해서 DNA 데이터 저장, 또는 DNA 합성기술도 가속이 붙고 있다고 전망한다.

그렇다고 아직 최첨단과학기술에 익숙지 못한 자신의 미래를 두고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려고 나서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수한 가능성은 늘 열려있게 마련이다.

사설

코로나19 재확산 초비상, '방심 절대 금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계속 퍼지면서 확산되는 불안감에 모두 떨고 있다. 백신접종 개시로 진정 국면을 보일 것이라 당초 기대와 달리 행락객 증가에다 전면 등교수업, 방역수칙 위반사례 증가 등 재확산을 불러올 요인들이 산적한 형국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한 자릿수보다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날들이 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다섯째 한 자릿수에서 23일 19명, 24일 17명 등 무더기 판정을 받았고, 5월 들어서만 무려 249명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최근 감염 특이사항이 관광객 중심에서 접촉자와 지인·가족,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지는 양상까지 더해졌다.

코로나19 재확산 불안 증폭은 특히 방역수칙 위반 사례, 관광객 급증, 전면 등교수업 등 방역을 어렵게 할 요인들이 도처에 산재한 이유로 크다. 관광객은 4월 106만9800여명, 이달 23일 기준

83만여명을 각각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98%, 53%나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관광지마다 인파들로 넘쳐나면서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 모든 학교가 24일부터 등교수업에 나선 점도 확진자 증가세와 맞물려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첫날부터 일부 학교가 밀집 접촉자 발생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만큼 불안한 출발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물리적 차단 시설의 방역위반 사례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달 10-23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벌인 결과 133건의 위반 사례들이 적발됐다.

도민사회가 초비상으로 치닫한 방역위기가 극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야외활동 최소화와 이동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방역수칙 준수 등이 다시 중시돼야 어렵게 할 요인들이 도처에 산재한 이유로 크다. 관광객은 4월 106만9800여명, 이달 23일 기준

도민혈세로 흑자경영, 성과급잔치 벌이나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 실태를 보면 매출은 말할 것도 없고 당기순이익도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여파 등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지방공기업에 매년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본보가 진단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 분석 결과 제주개발공사 등 어려움을 겪지 않은 곳이 없다.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삼다수의 매출은 소폭 줄었으나 유료사업과 감불가공사 매출액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음료사업 매출액은 29억원으로 전년(37억원) 대비 21.9% 줄었다. 감불가공사업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57억원에서 지난해 -69억원으로 적자폭이 급증했다.

제주에너지공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122억원으로

로 전년(189억원)보다 66억원이 줄었다. 품격발전설비 이용률은 전년에 비해 0.1% 감소했으나 사업 수익은 63.1%나 쪼그라든 것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의외의 실적을 냈다. 지난해 매출이 줄었는데도 흑자경영(9600만원)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이 녹록치 않다. 특히 제주관광공사의 성과를 들여다보면 놀라게 된다. 지난해 흑자경영을 거둔 첫 때문이다. 제주도의 인건비 보조금이 전년(30억원)보다 20억원 더 늘어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제주관광공사가 전년과 동일한 인건비를 지원받았다면 경영실적이 180도 달라진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흑자에서 무려 19억원이 넘는 적자로 바뀌게 된다. 그레놓고 흑자경영을 했다고 내세울 수 없다. 도민혈세로 흑자를 이뤘다고 성과급잔치를 벌일 것인가.

열린마당

남녀 갈등 서로를 향한 공격 이대로 좋은가?



서주연 동국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만 남녀 갈등이 70%, 이념 갈등이 14.8%, 세대 갈등이 5.1% 등의 순으로 성별 갈등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일어난 '서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도 한 주점에서 여성과 남성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까지 번진 사건으로 사건의 내용이 이성 혐오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논란이 됐다.

양성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나라도 많은 변화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돼지는 남녀 차별의 문제점, 사회생활이나 집단 안에서 심지어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남녀 차별 관행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처럼 서로의 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각자의 입장에서 차별이고 불평등이라 생각될 수 있는 감정을 감소시키고 남녀 갈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요구와 필요성을 수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해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미국 케이블 채널 AMC 네트워크에서 방영한 드라마 '매드 맨'은 1960년대 미국의 시대상을 잘 드러낸다. 특히 드라마의 장면 중 직장 내에서 남자 직원들끼리 모여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한국 여성들의 과거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며 여기에 더불어 서로의 성을 향한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 사회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에서 분석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의 사회 주요 갈등 담론 비중을 나타낸 조사자료의 통계를 보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강창일 대사 도지사 선거 도전할까

출마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

○...4선 국회의원 출신 강창일 주일대사의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올해에는 참여기관을 국가 공기업으로 확대해 성평등 의제 발굴 세미나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을 성평등 문화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고대로기자

한 발표 및 사례를 공유해 공공기관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선도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도 발굴.

○...25일 제28회 방재의날을 맞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주최로 한라수목원에서 열린 민관합동 캠페인에서는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 회적 거리두기 홍보캠페인을 전개.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도내 공공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1차 성평등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눈길.

방역의 주체이자 책임자

○...25일 제28회 방재의날을 맞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주최로 한라수목원에서 열린 민관합동 캠페인에서는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캠페인을 전개.

○...25일 제28회 방재의날을 맞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주최로 한라수목원에서 열린 민관합동 캠페인에서는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캠페인을 전개.

○...25일 제28회 방재의날을 맞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주최로 한라수목원에서 열린 민관합동 캠페인에서는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캠페인을 전개.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림씨 춘자(마리아·향년 9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5월 26일
아들 부승현, 며느리 김영자, 이석철, 조명옥, 부준현, 홍행림, 부영철, 윤용식, 부영진, 박은주, 딸 부영순, 사위 조원영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망 김승환 (1958. 07. 01. 생)
최후주소: 서귀포시 천제연로 178번길 8 (중문동)
상간사는 2020년 12월 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3월 8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84호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락처: 서귀포시 중문동로 55 (서귀동)
2021년 5월 26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 지 혜

토지 경매가격 급매
1) 서귀포 법원 최고 전매(특A++) 건축허가 완료, 10필지 중 토지 150-220평, 단, 8개 남음 ★평당 22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호근동 별장부지 법원 조망 최고, 서호초 2분, 하나로마트 3분거리 총 681평 ★150만원★
4) 강정동 해안도로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최고, 호텔 및 고급 빌라 부지용, 총 2486평 ★190만원★
5) 월평동 해안도로 초근접 바다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카페부지 특 A+++ 총 1635평 ★85만원★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월평동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건축허가 150평, 180평, 380평 ★160만원★
연락처: 010-5432-3543, 010-4627-3543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시정소식
시설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도급조사원 공고
○ 신청기간: 2021.06.03.(목)-06.10.(목) 18시 까지
○ 모집인원: 14명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제주시 농정국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조사기간: 2021.06.22.(화)-2021.8.14.(토) (기간중 39일)
○ 담당업무
- 현지 조사업무 수행 및 조사결과 입력
- 불응하는 조사대상 설득
- 조사한 조사서류 내용 검토 및 보완
- 조사관리자에게 조사내용 및 진척상황 입력
○ 문의: 제주시 농정국 ☎064-728-2792
제9기 시민경제대학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2021. 5. 17.(월) ~ 6. 11.(금)
○ 모집대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시에 되어 있는 자
○ 모집인원: 50명
○ 교육기간: 2021. 6. 17. ~ 12. 23.(총 28주) 매주 목요일 19:00 ~ 21:00
- 제1학기: 2021. 6. 17. ~ 9. 16. (14주)
- 제2학기: 2021. 9. 30. ~ 12. 23. (14주)
○ 교육내용: 경제, 리더십, 대화기법, 법률상식, 기업탐방 체험 등
○ 교육장소: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수강료: 1인당 30만원
○ 수강생 선발: 2021. 6. 14.(월) 16:00 예정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하여 선발통지
○ 접수장소: 제주시청 경제발전과,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읍·면·동
○ 지원서류: 입학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사진 1장
\* 신분증 지참(대리신청 불가)
○ 문의: 제주시 경제발전과 ☎064-728-2792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안내
○ 신청기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2006. 6.30.이전 출생자)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9,509명
○ 보장기간: 365일(2021. 7. 1. ~ 2022. 7. 1.)
○ 신청방법: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로 인한 골절전단 시(치아파열 제외) 10만원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도 보장 가능
- 다만, 지적·정신·자해·뇌전증·뇌병변 장애인에 관련법에 따라 후유장애와 골절 전단 보장만 가입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음악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